

새로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규범*

양윤재** · 배용규***

—<目 次>—

I. 서론	규범의 기본방향
II. 오늘날의 도시환경과 인간의 삶	IV. 결론: 사회적 규범은 누가 만들고 지켜가야 하는가?
III. 새로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I.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하고 있다. 우리의 삶이 그에 따라 변하듯이 우리가 사는 도시 역시 변하고 있다. 건물의 양식이 변하고, 교통수단이 변하며, 경제활동의 양태도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세상이 변한다는 것은 아마도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며, 인간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가치관이 시대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기술과 문명이 인간의 생활을 편하고 풍족하게 해주는 만큼 인간생활의 질이 보다 나은 상태로 진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이같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은 지속되어야 하며, 또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명제이다.

지난 20세기는 인류에게 참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던 시기였다. 산업혁명 이후 생산력의 급격한 증대와 자본주의의 성숙, 그 과정에서 겪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서냉전으로 인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거쳐 이제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오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산업발달과 경제성장을 통해 전에 없던 풍요를 누리고 있는 듯하지만 실은 그로 인해 우리들 개개인의 삶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저하되었고, 급기야는 인류의 생존까지도 위협당하는 슬픈 상황에 직면해 있다.

1999년은 금세기의 마지막 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있는 시점이다. 다가올 밀레니엄은 인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인가? 세계가 하나되고 다양

* 이 논문은 교보생명교육 문화재단이 1999년 11월 19일에 개최한 “21세기 삶과 주거환경의 재구축”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 삶의 가치들이 서로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져야하고 지켜야할 규범은 과연 무엇인가? 새로운 인간 삶은 과거 우리가 누렸던 물질적 풍요로움과 외재적 포만감에 힘써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정신적 가치와 내재적 만족을 되찾는 것이어야 한다. 급격한 변화속에서 혼돈되어진 개인의 삶과 전도된 사회적 가치체계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오늘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인간적 가치의 재발견이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라는 기본적 주제로부터 시작하여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에서 출발한 '일상'과 '보통'의 환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우리의 가치는 특정계층이나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보통사람들의 일상생활속에서 찾아지고 그로부터 새로운 규범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부터 모든살이는 시작되었다. 태초의 인간정주환경은 자연을 토대로 하고 있는 생태적 환경의 한 요소로서 존재하였다. 이같은 거대한 자연의 질서가 왜곡되고 교란되었을 때 생태계는 파괴되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의 위기 역시 바로 이러한 자연질서의 교란, 즉 생태계의 불균형과 파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환경이 온전하게 보전되고 그들 상호간의 균형과 질서가 유지될 때 생태계는 건강하게 유지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태계의 구성요소들은 위협을 받게 된다.

인간의 삶은 그것이 인간다울 수 있을 때 가장 빛나기 마련이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은 바로 인간자체에 대한 소중함이었다. 기계문명의 발달은 인간을 말짚드는 기계로 간주하여 사회의 한 톱니바퀴로 바라보게 하였고, 전체주의적 사상은 인간을 커다란 시스템의 작동을 위한 지시와 통제의 대상물로 바라 보게 만들었다. 이같은 사상과 가치관의 절대적인 영향력에 의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인간적 존엄성은 상실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위기도 여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고 보겠다.

다가오는 새시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우리는 이 같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규범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의 원천은 무엇이며, 남과 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개인과 집단으로 분리되어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갈등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때가 온 것이다. 기술과 문명발전의 그늘에 가려진 자연파괴와 인간성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들 자신은 물론 우리 후손들의 삶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되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사회와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II. 오늘날의 도시환경과 인간의 삶

1. 우리의 여건과 도시환경의 문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사회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대두되는 세방화(Glocalization)

와 국가적 경제위기에 따른 정치·경제적 여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여건, 인간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위기에 따른 환경적 여건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질 수 있다.

첫째, 정치·경제적 여건으로 세계화·지방화를 의미하는 세방화와 post-IMF시대를 맞는 경제구조재편을 들 수 있다.¹⁾

우리사회는 제2기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을 계기로 풀뿌리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장이 펼쳐짐과 동시에 WTO, APEC, OECD 등으로 국제적 협력기반이 구축되고, 초국경적 경쟁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전통적인 국가와 민족의 의미는 점차 약화되는데 비하여 문화적 전통과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지방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세방화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와 하의상달식의 의사결정과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놓여있는 지방이 해야 할 일은 국경없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많은 지방정부는 나름대로 미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살기좋은 지방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보다는 인기위주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어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등 오히려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현재 post-IMF시대로 일컬어지는 경제구조 조정기에 놓여있다. 지난해에는 사회전반에 걸쳐 긴축재정, 금융개혁,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의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었으며, 지금도 뼈아픈 구조조정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 여파는 지금까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던 거품을 잠시나마 제거해 버리는 긍정적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긴급구제금융의 전액상환과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외환유동성 증가를 들어 마치 우리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선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외채는 중·장기로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실제 시장경기는 민간투자의 현저한 감소, 고용기회의 축소, 구조조정의 지속적 전개 등 실제 시장경기는 상당히 위축되어 다시 살아나기에는 여전히 험거운 상태에 있는 듯하다.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산업부문은 지식기반산업의 등장으로 새로운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즉, 기존산업의 첨단화가 시도되고, 정보·통신산업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금융산업도 새롭게 변모하고, 기존의 제조업이 서비스산업화 되는 등 산업구조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둘째, 사회·문화적여건으로 탈근대사회로의 진입을 알리는 패러다임의 변화, 다양성을 존

1)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의 내용을 묶어 발간한 「IMF 경제위기 1년반 평가와 과제」(1999.9)라는 책의 말미에 수록된 IMF경제위기의 극복여부, 경제부문개혁, 정치·공공부문개혁, 사회·생활여건 등 4개부문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경제위기의 재발가능성에 대해 일반인 64.8%와 전문가 50.8%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내년도 경제전망에 관해 일반인 82.7%, 전문가 86.2%가 약간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IMF경제위기 이후 소득격차에 대해 일반인 75%, 전문가 81.5%가 심화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상당한 우려와 낙관이 교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정부발표는 아주 낙관적이지만, 일반국민이 느끼는 실재는 상당히 비판적인 것이 사실이다.

중하는 사회규범의 변화와 비트화된 문명에 기초한 네트워크의 사회로 옮겨가는 것을 들 수 있다.²⁾

우리사회 곳곳에서 감지되는 탈근대화는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 전문화로 대표되는 바, 이는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한 개성과 다양성의 추구, 환경의 질에 대한 높은 욕구, 전통과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경향 등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이 같은 변화는 생산구조가 대량생산·획일성·표준화에서 소량생산·다양성·주문형으로 바뀌어지고, 공간조직이 공간적 분업·노동시장 등질화에서 공간적 통합·노동시장 다각화로 바뀌며, 국가가 규제·경직성·중앙집중에서 탈규제·유연성·분산경쟁으로 모습을 달리하고, 또한 이데올로기가 대량소비·총체성·사회화에서 개인소비·구체성·개인화로 전환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과거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회규범은 현재 산업의 고도화, 사회의 민주화, 국가의 개방화에 따라 복합적이고 유연한 규범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 우리의 사회를 재구축하고, 우리의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가도록 바뀌어져야 할 때이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를 구성하는 기초단위가 비트(bit)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비트들이 연결된 네트(net)상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새로운 문화에 직면하고 있다.³⁾ 사이버네틱 환경의 출현은 근대적 질서의 해체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으며, 아날로그형식에 의존한 과거의 사회구조는 일대 다수의 일방적 관계속에서 송신자 중심의 정보에 의존하는 공간적 편향성을 띠어왔다. 그러나, 디지털형식의 새로운 사회구조는 시공간 편향성을 지니며, 다수대 다수의 상호작용적 관계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행위자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있게 되었다. 비트를 매개로 형성된 탈근대문명은 그와 같은 비트화된 사회, 네트화된 문명을 연출할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새롭고 낯선 문명에 우리사회가 제대로 적응하고, 이를 매개로 한

2) 「City of Bits」라는 책에서 William J. Mitchell(1995)은 책의 머리에서 '미래의 도시는 인터넷에 세워질 것이다. 아득한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멘데레스강 옆의 협소한 반도 위에 밀레토스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는 21세기의 수도로 자리잡을 비트의 도시를 건설해야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그는 비트의 도시는 광케이블을 도시에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여기고, 이러한 광케이블을 타고 흐르는 비트로 이루어진 정보가 마치 우리 몸의 피처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비트의 문명 네트의 사회」라는 책에서 라도삼(1999)은 과거 세상의 기초단위가 원자였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기초단위는 비트라고 규정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비트는 자신을 스스로 재현하고, 동일한 지반과 특정한 이미지체계가 없으며, 누구와도 쉽게 결합하는 성질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비트들의 '선'으로 이루어진 것이 '네트'이며, 따라서 새로운 세계는 비트로 구성된 문명과 네트로 이루어진 사회라고 보고 있다.

3) 라도삼(1999), 상계서, 커뮤니케이션북스, p.228. 여기에서 저자는 '비트란 대상을 절단하여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형의 형질로 구성된, 컴퓨터가 인식하는 최초의 정보단위에 불과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새로운 문명이야말로 비트를 기원으로 하는 것이고, 비트만으로 설명되어지는 전혀 낯설고 새로운 세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듯 비트란 문명의 기원으로서, 세계의 원리로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가상공간을 기반으로한 새로운 탈근대 문명이 열리고 있다는 것, 그로부터 근대의 모든 규범과 질서, 구조와 중심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문화가 건전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즉, 테크노음악에 맞춘 기계적인 테크노 춤과 콜라를 먹고 즐기는 '콜라텍', 지하클럽에서 외쳐대는 '인디음악가들', 전통적 틀을 깨고 자유를 추구하는 '거짓말'과 같은 영화들은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경향을 즉흥적, 말초적, 충격적이라는 단어로 쉽게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분명히 우리사회의 일단의 구성원들이 가진 가치의 표출이며, 과거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동인중의 하나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적 여건이라는 측면에서, 기상이변으로 대표되는 지구환경의 위기, 환경조건의 변화로 인한 인간생존의 위기를 들 수 있다.⁴⁾

먼저, 1992년 리우환경회의를 계기로 지구환경의 위기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되었다.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 지구온난화, 심해류의 속도저하로 인한 지구저온화 등 기상변화는 어느 것이 옳고 그릇된 것이냐를 떠나 엄청난 지구환경의 위기가 상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지구를 구성하는 판의 움직임이 증가되고 빈번한 화산활동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는 지구환경의 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환경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개발에 대한 철학이나 태도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규범과 개발패러다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등장한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개념은 도시민들의 생활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경의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도시환경의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중심적,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최근의 대만과 터키의 지진으로 인한 수많은 사상자의 발생은 인간 생존의 위기를 다시금 느끼게 한다. 지금까지 생태적 원리를 무시한 인간의 독선과 아집으로 일구어온 인간사회는 개발위주의 정책추진과 환경을 도외시한 인간중심 사고의 소산이었다. 이 결과 우리는 숨쉬기도 힘든 공기를 마시고, 악취나는 강과 하천에서 나온 물을 마시며, 넘쳐나는 쓰레기 더미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더구나 환경적 수용능력을 무시한 과도한 개발과 무리한 이윤추구를 위한 인간의 환경착취는 자연의 신비함을, 도심의 정취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파괴해 버리고, 심지어는 터키와 대만의 지진피해 현장에서 보듯 가까운 많은 생명을 앗아가 버렸다. 결

4) 환경의 위기에 관련한 국제적인 인식은 1972년의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환경회의(UNCHE)를 시작으로 하여, 1980년의 국제자연보호연합(IUCN), 1982년의 나이로비 선언, 1988년 유엔총회, 1991년 G7회의, 1992년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등에서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열린 「International Symposium on Sustainable City Development」(1999.10)국제회의에서 유엔인간정주회의(UNCHS)의 국장인 Ignacio Armillas는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도시를 생태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노하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우리는 생태적으로 효율적인 도시의 부활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인간정주지 관리를 위한 수요관리 전략으로 문화적 적응과 계획과 규제, 경제적 도구의 활용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 자연환경을 무시한 개발중심의 사고는 인간과 환경이 맺고 있는 생태적 고리를 끊는 인간 생존기반의 파괴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여건에 우리는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사회에서는 그 동안 누적된 문제가 하나 들쭉 터져 나옴과 동시에 높은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우리의 도시 역시 유기체적인 생성, 성장, 쇠퇴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문제를 지녀 왔다.⁵⁾ 즉, 우리나라의 도시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도시가 형성·개발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자연환경을 도외시함으로써 심각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도시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생태적 속성에 따라 도시외부로부터 대량의 자원과 에너지를 유입하는 동시에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민주화라는 사회적 가치변화의 수용과 적응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계층간·분야간 갈등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현실세계에 도시가 적응하기 위한 도시공간의 재구조화 현상에 따른 혼란과 상충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예를들면,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면서 행복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 이는 우리의 도시가 얼마나 새로운 이념과 가치관의 등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서울은 세계에서 2번째로 인구밀도가 높고(사실 가용지당 인구는 세계최대이다), 환경문제가 심각하며, 범죄와 사고발생률이 으뜸가는 도시로 유명하다. 시간이 갈수록 대기오염을 경고하는 수치는 높아만 가고, 생소하기만 했던 오존경보는 연일 매스컴의 주요 기사꺼리로 장식되며, 오늘의 교통사고 사상자를 알리는 숫자는 시민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 통계상으로 공원면적이 17%에 달하고 있지만 실상 마음놓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극히 드물며, 지하철의 연장길어도 2000년이 되면 세계에서 3번째가 된다고는 하지만 도시공간구조와 노선망의 부정합, 각 노선간의 불편한 승환체계, 그리고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미흡한 연계 등으로 불편하기가 그지없다. 세계 주요도시의 문화시설 현황비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인구백만명당 영화관수는 17.8개, 도서관은 2.96개를 기록하고 있어 비교대상 8개 도시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⁶⁾ 이렇듯 서울은 시민들이 편하고 기분 좋게 살아

5) 최병선(1997, pp.243-250)은 '우리의 도시는 건강한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면서 우리도시의 문제를 진단하였다. 서양에 비해 두배이상 빠른 도시화과정의 특수성과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급격한 경제개발과정의 특수성, 그리고 오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들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도시재생을 길을 제시하였는데 '도시재생이 건강한 도시, 궁극적으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새로운 길은 모든 가치판단의 중심에 삶의 질을 위치시키므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삶의 질은 모든 가치 판단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일은 과거의 주조적 가치였던 물질주의, 양적 성장주의 등을 새로운 가치인 인본주의, 질적 충족주의로 대체하는 사회적 가치체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언급하길 '도시재생은 바로 이와 같은 가치체계의 전환을 전제로 한 기존관행과 제도의 혁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6) 서울특별시(1998.6), 「98서울시정」, p.298. 도시비교통계연보(서울시, 1996)와 서울통계연보(1997)를 참고하여 서울을 비롯한 뉴욕, 상하이, 도쿄, 싱가포르, 파리, 베를린, 모스크바를 비교한

가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너무 많다. 항상 무슨 때만 되면 듣게되는 시민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ی겠다는 시장과 대통령의 말들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표적인 사회여론 주도층인 정치권이 정략적 의도에서 남발하는 공약은 시민과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바가 없는 '空' 약일 뿐이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를 가장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라 하겠다.

2. 새로운 이념의 등장과 도시환경의 지속가능성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은 인간의 가치변화와 사회환경의 변용, 그리고 그로부터 생겨나는 문제해결을 통해 그 모습을 달리해왔다. 즉, 변화된 환경속에서 새로운 가치는 재창출되고 도시환경은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도시들이 서구의 도시들에 비해 상당히 짧은 기간에 '근대성(modernity)'을 이루었으며, 우리의 근대화가 완성될 무렵 다른 나라는 소위 '탈근대화(post-modernization) 단계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념은 현대화, 근대화 과정에서 생겨난 편리, 효율 등의 가치이념이 중심이 되어 도시의 삶을 지표화하였던 것이며, 이렇게 지표화된 수치는 도시민 개개인의 삶을 결코 대표하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도시민의 삶은 다양하고, 다중적이며, 복합적인 현상으로 도시공간상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절보다는 결합을, 분산보다는 집중을, 개인간의 갈등과 배타보다는 전체로서의 협동과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간성 상실에서 인간성 회복으로, 환경 무시에서 환경중심으로의 변화는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이념의 등장에 따른 부작용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은 편해졌지만 그로 인한 인간소외와 인간성 상실은 우리에게 있어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이념에 부합되고 도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과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도시환경이 서로 조화되어야 한다. 즉, 지역의 경제적 기반구축과 자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내의 생산과 서비스산업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산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의 전통적 문화유산과 고유의 공동체성 회복이다. 과거의 도시화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농촌의 공동체를 파괴시켰고, 도시의 공동체마저도 해체시켜 버렸다. 오늘의 도시문화가 개인화와 비인간화로 특징지워 진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동체를 재생하거나 새로운 공동체를 창출하여 새로운 도시문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운동의 활성화이다.⁷⁾ 시민들이 자

자료이다.

7) 시민들의 자연스런 참여에 의한 도시환경의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

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시민들이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 이르기 까지 참여하는 시민정치가 민주적으로 재구축되어야하며, 구체적인 도시환경의 계획과 설계과정에 당당히 주체로서 참여하는 주민참여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

도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들만이 살다가 가고나면 없어지는 곳이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들이 자손대대로 살아가야 할 곳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도시를 잠시 빌려쓰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이 계속 도시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도시를 보살피고 가꾸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한 지속가능한 개발은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은 상호의존 관계에 있으므로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호혜적 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에 대한 한 연구⁸⁾는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며, 자급경제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중의 하나는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이다. 사회적 관계망이란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단일 또는 복수의 관계로 인해 형성되는 집합적인 관계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 개인은 비로소 사회적 의미를 갖게된다. 최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새서울 어떻게 가꿀 것인가”라는 것을 주제로 한 도시문화포럼에서 제시된 서울의 새모습은 ‘기성의 틀에 대한 저항, 표준화된 생활방식이 아니라 개성화된 생활방식, 세대와 분야를 탈피한 광범위한 네트워크’이 핵심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⁹⁾ 이는 앞으로 도시사회는 획일적이고 확정적인 것에 대응하여 다양하고 유동적인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인간의 삶이 과거의 관습과 인습의 폐해를 극복하여 인간적 관계망에 기초한 틀을 구축해야 하며, 또한 삶과 삶의 터전인 도시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인간과 도시가 공존공생한다는 도시적 가치를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사회는 그 동안 높은 지가와 고이자율, 낮은 생산성 등에 의한 저효율·고비용 구조로 인해 비정상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최대의 용적을 확보가 지고의 가치로

적으로 경제실천정의연합의 ‘도시개혁센터’와 ‘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등이 있다. 특히, 후자는 일반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서 도시의 주체로서 시민이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http://www.dosi.or.kr/>).

8) 이창우(1997), “우리나라 도시의 환경보전적 실태와 과제”, 「우리나라의 도시는 과연 지속가능한가?」, 제4회 도시환경정책세미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환경계획연구소, p.10, p.35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오두막집” 모델을 통해 5가지의 원칙(미래와 자연을 기동으로, 형평과 자급을 지붕으로 참여를 대들보로 표현)을 설명하고 있다.

9) http://www.sdi.re.kr/publish/912_for8.html. 1998년10월27일 ‘서울시민의 날’ 기념 도심문화포럼에서는 문화예술계(연극·영화·음악 등)와 학계·법조계 등의 30-40대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서울의 도시환경을 평가고 가꾸어 나갈 방향을 진지하게 토론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사이트를 참고바람)

인식된 나머지 모든 건물은 높고, 크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지어야만 성공적인 개발, 좋은 건축이라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건물의 공실율이 늘어나고, 임대료가 낮아지며, 지가가 하락하는 등 소위 '거품'이 빠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도시는 거품의 '만연'으로 인해 토지와 주택은 주요한 투기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지난 수 십년 동안 도시경제와 거주환경을 왜곡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왜곡된 도시환경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대부분의 도시민들은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

우리의 도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곳이다. 그렇게 때문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으며, 권력을 가진 사람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도 함께 존재한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으로 첨단을 달리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인간생활의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주거지도 있다. 이렇듯 도시는 깨끗한 곳이 있는 반면 더럽고 어수선한 곳도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도시사회가 바람직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도시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장소라는 인식을 공유한다면, 앞으로 환경조성과 도시개발의 방향은 분명해질 것이다.

3. 새로운 도시환경의 규범을 제시하고자하는 노력들

질 높은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선진국에서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다. 과거 인간이 행해온 개발에 대한 반성으로서 자연을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는 태도에서 시작된 유럽의 압축도시, 미국의 뉴어바니즘과 스마트성장이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도시개발의 새로운 접근 방향으로서 '소단위 적응형 재개발수법'이 선진국의 경향과 동일한 입장에서 제시되고 있다.¹⁰⁾ 간략히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의 압축도시론(Compact City)이다.¹¹⁾ 1990년 유럽위원회는 도시내에 집중된 제반 활동들이 도시외곽으로 개발압력을 가함으로써 도시내 기능이 공간적으로 확산되고 그로

10) 이의 최근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기관에 새로운 도시환경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장 최근의 시도로서 대한주택공사가 중심이 되어 개최한 「21세기가 요구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방향」(1999. 11. 4)이라는 세미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11) M. J. Breheny(1992), 「Sustainable Development and Urban Form」, pp.138-159.
이 글에서 저자는 압축도시론을 미래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대안으로 조금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압축도시가 에너지 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압축도시가 에너지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못하며, 현재 유럽인들이 교외에서 누리고 있는 삶의 질을 대체할 만한 매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녹색도시(Green City)의 이상에도 상반되는 부분이 많고, 정보통신의 발달에 의한 분산과도 상반되며, 특히 재생가능한 에너지원과 어울리는 저밀도의 도시구조와는 다른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압축도시론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인해 도시환경이 악화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제안하였다. 고밀도시를 구성하여 교통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으로 도시가 더욱 깨끗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연구는 도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의 문제를 결부시키려고 노력하여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서울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¹²⁾

둘째, 미국의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이다.¹³⁾ 이것은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새로운 개념의 커뮤니티를 창조하고 재생하고 하려는 새로운 시도로서 뉴어바니즘이 등장하였다. 뉴어바니즘은 주거, 직장, 쇼핑, 휴식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생활구성요소를 밀집되고, 보행친화적이고, 혼합용도의 근린주구로 재통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표현으로서 1991년 요세미티계곡안에 있는 Ahwahnee호텔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제시된 것은 ‘현대 도시의 개발패턴은 심각하게 우리의 삶의 질을 손상하고 있어 과거와 현재로부터 최선의 것을 찾아냄으로써 우리의 커뮤니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계획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원칙은 오늘날의 도시가 자동차에 대한 높은 의존에서 비롯된 혼잡과 공기오염, 귀중한 오픈스페이스의 손실, 도로와 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비용, 경제적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 공동체의식의 상실이라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공동체와 지역이 지켜야

12) 변영진(1999봄), “서울시 도시개발계획의 기본방향”, 「부동산리서치」, 한국감정원. 창간호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날의 물량적 성장주의와 급속한 도시발전은 오히려 성장의 토대인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왜소화’ 시켰음을 직시하고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성장’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도시생태계에서 인공환경과 자연환경의 조화롭지 못한 모습은 세계적 경제통합과 그에 따른 도시공간의 재편, 일상생활의 변화 속에서 더욱 강화된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압축도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도시규모가 가진 지역환경용량을 측정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각종 시설물을 공간적으로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개발의 형태와 밀도 등에 대하여 합의할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전략의 하나인 ‘압축도시’(compact city)의 논의에서는 고밀도 개발과 토지의 압축적 이용을 통하여 효율성을 최대화하려고 한다. 또한 압축도시에서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동거리를 단축시켜서 환경에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혁신적이면서도 문화적으로 풍부한 도시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13) 뉴어바니즘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위해 뉴어바니즘평의회(THE CONGRESS FOR THE NEW URBANISM)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nu.org/>)를 만들어 활발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 장소감 없이 진행되는 교외개발에 대한 반발로서 교외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적인 커뮤니티 운동에서 최근에서 쇠퇴한 도시지역을 살리기 위한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뉴어바니즘이 가지는 장점외에 단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몇 년전에 개봉된 짐캐리 주연의 「Truman Show」는 뉴어바니즘이 가진 맹점을 통렬하게 풍자하고 있다. 또한 1999년 3월에 하버드대학에서 개최된 「Exploring (New) Urbanism」이라는 회의에서 뉴어바니즘은 비판을 통한 발전을 기회를 갖는 등 많은 관심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뉴어바니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심도시의 불황, 장소없는 스포츠의 전개, 인종과 소득에 의한 분리의 심화, 환경적 황폐화, 농업용토지와 황무지의 사라짐, 그리고 상호관련된 커뮤니티 형성의 도전’ 등을 고려할 때, 오늘날 서울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델 원리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스마트성장(Smart Growth)이다.¹⁴⁾ 스마트 성장은 경제적 측면에서 균등한 경제적 기회제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추구하며, 커뮤니티의 측면에서 공동체 의식을 복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개념을 내세운 도시성장관리 모델이다. 특히, Smart의 'S' 자를 '\$'로 사용하여 경제적인 측면의 고려를 암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많은 주와 자치단체들이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의 목적은 첫째, 환경적으로 스마트하여 대기와 수질을 보호하고 자연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황폐해진 곳의 재개발을 유도하며, 재정적으로 스마트하여 재산세의 지속적인 증가 없이도 높은 질의 공공서비스가 가능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스마트하여 커뮤니티의 경제적 활력과 적응성을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형평성을 추구하고 장소감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 9월에 발표된 Clinton-Gore Livability Agenda(1998.9)를 살펴보면 '스마트성장' (Smart Growth)은 녹지공간을 보존하고,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며, 공동체 의식을 다시 심어주고, 상호협력을 권장하고, 경제적 경쟁력을 보장하는 것을 강조하여 환경적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수복형 재개발수법을 들 수 있다. 1999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전면 재수정하면서 필자와 공동으로 마련한 '소단위 적응형 재개발 수법'은 새로운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¹⁵⁾ 도시개발의 방향은 과거 '대자본·대규

14) 스마트성장운동은「Smart Growth Network」(<http://www.smartgrowth.org>)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매개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 후보를 이것을 정책공약의 기조로 삼고 있다. 스마트성장은 경제와 환경 그리고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개발을 의미한다. NAHB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 최근 제출한 보고서인「Smart Growth: Building Better Places to Live, Work and Play」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의 인구증가와 경제역량 강화에 "보다 스마트하고", 보다 살기좋은 커뮤니티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주택건설업자들이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스마트한 성장을 만족시키는 주거의 요건과 교외지역은 더 이상 단순한 침실커뮤니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스마트개발은 지방커뮤니티의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효율적인 토지이용기법을 의미한다는 사실과 지방정부들이 이를 지원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또한 "SMART GROWTH STATE BY STATE"(1999.11.4)의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성장의 경향은 전국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5) 서울시정개발연구원·양윤재교수연구실(1999.9), 「소단위 적응형 재개발수법 연구」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도심의 노후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 도심부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과 경제적 여건을 심층분석 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소단위 적응형 재개발 수법의 전제는 '지구단위의 계획수법으로 기존규제를 대체하고, 필지소유자의 자력개발을 지원하며, 최소한의 경제성확보가 가능토록하며, 기존용도수용과 주거기능 도입'이며, 수법적용을 위한 기본방향은 '소단위별로 집단개발밀도를 정하고, 다양한 필지조건에 따라 개별필지별로 개발방향을 정하여 현실적인 필지규제지침을 마련' 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도시개발의 새로운 방향은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여건에 맞으며

모·전면철거 개발'에서 '소자본·소규모·수복형 개발'로 전환하여 도시의 독특한 문화를 살리고 토지소유자가 중심이 되어 그들의 여건에 맞으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발수법으로 도시의 역사성·인간성 회복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과거 신개발 위주의 경직된 사고에서 출발한 토지이용규제는 산업의 고도화, 사회의 개방화·민주화에 따른 복합적이고 유연하며 참여적인 규제로 전환시켜, 이제까지의 개발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수복하고 재생하여 재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중심의 도시환경에서 보행자 중심의 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는 도로, 교통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Ⅲ. 새로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규범의 기본방향

1. 생태적으로 안정되게 (ecologically stable)

세계적인 성장과 발전추세 속에서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예기치 않는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 지구온난화 현상과 오존층 파괴, 산성비, 고형폐기물 처리, 국지적 이상기후 등으로 지구의 생태적 안정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해온 자연환경을 소재로 한 과도한 신개발, 그리고 생태적 수용력을 무시한 고밀개발과 에너지 유출입이 높은 재개발 등으로 도시의 생태적 안정은 위협받고 있으며, 그나마 유지되어 온 사회적 구조마저 파괴하고 있다. 도시가 생태적으로 안정을 유지해야만 인간을 비롯한 생태계의 구성요소가 건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생태적으로 안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전제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도시생태계의 구성요소들의 서식환경이 건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도시는 무수히 많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매우 다양하기 마련이다. 이들 각 구성요소나 구성원들은 모두가 각기 나름대로의 존재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도시가 생태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모두들 삶의 기반을 도시공간속에 마련하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면서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연과 인공물, 옛것과 새것, 가진자와 못가진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전통과 혁신 등이 함께 공존하며 조화를

(affordable), 선택의 폭이 넓게(flexible) 도시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관련된 연구로서 최막중(1998. 12), "기능수복형 도시재개발: 신림동 순대음식업 사례연구", 「국토계획」, pp. 39-49에 따르면, "신림동 순대음식업의 수복재개발은 나름대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성공적인 기능수복형 재개발사업으로 평가된다"고 하면서 그 성공요인으로 지주와 임대인간의 이해조정이 원활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 결과로 순전히 민간의 자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소단위 적용형 재개발 수법이 민간의 자력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소단위 적용형 재개발 수법'을 입증해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루면서 사는 곳이 진정한 도시의 모습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의 도시환경은 나무와 새들과 같은 생명체가 보호되고, 흙과 물이 숨을 쉬며, 도시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생활이 보장됨으로써 도시의 구성요소들과 도시민 개개인의 삶은 물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태적 안정성에 근거한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과 인간적인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도시의 '자연화'는 필수적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을 인공화시킴으로써 기능적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왔다. 지금까지의 고층 고밀위주의 도시개발이 진행될 경우 도시내의 자연적 요소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로인한 삭막한 환경의 연출은 결코 미래 도시환경으로서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그나마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시외곽의 자연상태의 토지를 이용한 대규모의 신개발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과도한 고밀개발이 예상되는 도심지역의 경우 제도적으로 충분한 녹지와 오픈스페이스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자연요소의 훼손을 방지함은 물론 과거의 자연상태가 훼손되었거나 녹지와 오픈스페이스의 확충 가능성이 있는 곳은 복원, 복구하여 자연적인 요소가 최대한 유지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셋째, 에너지의 저소비·저비용·고효율의 물질 순환형으로 구조가 재편되어야 한다. 도시는 자연환경과 많은 다른 점을 나타내고 있지만, 자연환경과 같이 하나의 '계(system)'로 파악되어질 수 있다. 생태계는 외부로부터의 에너지와 물질의 유입이 일어나고 에너지의 흐름 및 물질의 순환과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순환에 있어 하나의 계는 입출입이 적으면서 내부의 순환비율이 높은 것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는 자연계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에너지 및 물질의 입출입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광대한 배후지에 의존하게 되어 도시의 자생력 및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사회적 엔트로피의 감소를 위해 도시는 대중교통과 보행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며, 전면 철거형의 개발보다는 수복형·적응형의 개발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을 실천함으로써 생태적인 안정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2.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이(economically affordable)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적 자산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도시공간은 지배자의 통치이데올로기와 가진자의 자본의 논리속에서 소시민들은 거대지배구조에 대한 종속을 강요당해 왔으며, 그로 인해 계층간의 공간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소시민들은 도시생활의 대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치르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도시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게 된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가 급진전되고 있으며, 도시공간 역시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도시환경으로 변모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도시환경이 시민들의 공적자산으로 자리매김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사회적 규범은 우선 경제

적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환경을 조성하는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개인은 일방적 생산의 소비자에서 다원적 사회의 소비주체로 그 역할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거대담론에 의해 묶어진 체계 속의 부품을 거부한 개인은 하이퍼텍스트의 쌍방향의 다중적 구조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소수의 공급자가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방향적으로 공급해온 공급자 지배 경제구조는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쌍방향적 생산과 소비가 병행되는 소비자 중심의 유연적 경제구조로 변모되었다. 도시환경의 조성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시공간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이 다양한 계층의 요구에 맞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종 소비자인 도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간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가치를 회복할 때만이 도시공간의 거품이 없어지는 것이다. 투기의 목적으로 몰려든 소위 '개발예정지구'는 천장부지로 땅값이 상승하고, 저소득층의 삶의 터전인 달동네의 '재개발'은 투기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과시적이고 전시효과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품섞인 우리의 모습은 도시의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 집은 없어도 자가용은 굴려야 한다는 생각은 길마다 자동차의 홍수로 교통마비현상을 일으키고,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 큰집을 지니고 살아야 대접받고,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통해서 재벌이라는 이름을 얻어야만 큰소리를 치는 사회풍토에서 도시가 제대로 지탱될 수 없으며, 스스로 부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셋째, 지금까지의 도시개발이 도시의 최종적인 모습을 정해두고 이를 추구해 온 경향이 짙어왔다. 그러다보니 개발주체가 부담할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투자한 결과, 대규모의 고급화된 건물의 건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생산에의 오버헤드가 많이 지불되게 마련이며,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업종 또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도심부의 대형 업무시설들은 획일적인 용도로 채워지고, 과거 도심이 가졌던 다양한 기능들은 하나 들썩 밖으로 밀려나가거나 지하로 숨어들게 마련이다. 도시란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기에 도시다움을 간직한다. 따라서 고급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것도 함께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도시다운 것이며, 그래야만 필요한 시설이 적정한 경제적 댓가를 지불하면서 도시에 남아있게 된다. 도시에는 부자층도 있지만 저소득층이 부담없이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곳도 필요하다.

3.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environmentally sustainable)

도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한다. 인간사회는 모듬살이를 시작한 이래로 오늘에 이르

기까지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유지되어 오고 있다. 도시의 인구규모와 구성밀도 등의 물리적 특성이 변하고 도시의 생산구조, 집단간의 상호작용체계, 생활양식, 정치체제 등이 변하는 것은 모두 도시변화의 구체적인 현상들이다. 이러한 개별적 변화가 집적되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은 생성, 성장, 쇠퇴, 재편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악순환이 될 경우 도시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쇠퇴의 길을 걸을 것이며, 순순환이 될 경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이 될 수 있다.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가 제역할을 다할 때 도시환경은 지속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적응형·수복형으로 개발이념을 전환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87%를 넘어서고 있어 선진국의 도시화율과 비교해볼 경우 더 이상의 도시화 진전은 서서히 둔화되어 일정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¹⁶⁾ 따라서 이제까지 도시개발의 주요한 수단이었던 신도시나 신시가지의 개발은 상당히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발생하는 도시개발 수요의 발생은 기존 도시지역 내에서 충당해야 할 것이다. 기존 도시지역내의 개발이 기성시가지가 형성하고 있는 도시적 맥락을 존중하므로써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따라서 기성시가지의 개발·정비에 부합하는 수복형·적응형의 정비수법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유연한 토지이용규제로의 전환이다. 도시공간의 이용기회와 선택의 여유가 많은 개발을 가능케하므로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도시의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사회의 주역들은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가진 환경을 요구할 것이며, 도시환경도 그들의 요구와 지역에 따라 도시의 입지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고유한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의 조성이 미래의 도시개발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전통적인 용도지역제에 근거한 토지이용규제는 그 속성상 경직성, 획일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는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물리적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고급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고비용의 관리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적응될 수 있는 용도의 제한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즉, 소규모의 대중적이며 낮은 관리비용으로 다양한 용도를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물리적인 유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도시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셋째, 도시는 변화를 기본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결과로 나타나는 도시의 모습이 결코 완벽한 도시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다. 인간이 지구상에 도시를 만들어 온 이래 수많은 이상도시를 건설해 왔고, 유토피아의 꿈을 버린 적이 없지만 아직도 인간의 목적은 바람직한 삶이 영위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간의 노력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는 바로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 최종적인 도시의 모습을 만들겠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환경은 당시의 요구에는 맞

16) 선진국의 도시의 경우를 참고할 때, 대부분 90% 수준에서 도시화율이 멈추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을 수 있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고치거나 부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도시개발도 완벽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보다 유연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문화적으로 다양하게(culturally variable)

도시는 오랜 시간의 축적과 적응과정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장소와 문화들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근대화와 도시화는 서구문화에 대한 전전한 비판의식이 결여된 채 무분별한 도입을 초래했으며, 최근의 국제화·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그 폐해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우리 고유의 문화와 독특한 특성이 상실되고 결국 가치관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어 가치관의 공백상태에 빠져 문화적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의 삶이 문화적으로 다양함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속에서 영위될 때, 우리는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의 특성과 역사환경을 존중하는 것이다. 고유성의 상실과 획일성의 만연은 도시에 대한 주민들의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도시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지금까지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으로 인해 도시 곳곳의 독특한 특성이 소멸되고, 장소로서의 정겨움이 사라졌다. 다양한 특성에 근거한 독특한 문화의 형성은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여 질이 높은 도시환경으로 인식하게 한다.

둘째, 개인의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과거 개인의 개성은 전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만연된 사회분위기였다. 개인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없는 우울한 상태에서 사회의 진보와 발전은 어렵다. 높은 삶의 질은 개인의 능력을 맘껏 발휘하고 이로 인해 만족감을 느낄 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 우리의 사회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존중된 개성이 사회곳곳에서 제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소외계층을 존중해야 한다.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의 소외계층과의 공생·공존이 없이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도 없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과 존재하고 있는 무생물들은 인간과 함께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몸의 운명공동체이다. 자연과 옛것을 살리고, 보행자를 고려한 환경조성과, 노인·어린이·장애인을 배려하고 시민과 이용자를 생각하는 인식을 가짐으로써 질 높은 환경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즉, 연령별 계층의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노인과 기성세대, 청소년 등 집단의 소문화를 사회의 다양한 문화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경제적 수준에 따른 소속집단의 특성을 이해하여 상대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실상에 사회적 규범을 적용함으로써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socially equitable)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사람이며,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 도시는 유지되고 발전된다. 도시에서의 삶이 바람직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저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도시공공시설의 독점과 도시개발로 인한 이익의 불공평 배분, 그리고 각종 공해로부터의 피해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등 도시공간의 불평등 현상이다. 미래의 도시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요구에 의해 변화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으며, 이 같은 도시환경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계층간의 서로 다른 가치와 욕구가 도시공간 속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형평성이 보장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적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성별간의 자원과 정보의 재분배와 이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는 사회적 주체들(정부, 기업, 시민 등)간의 정치적 상호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정치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통해 사회관계는 평등적 획일성이나 차별적 다원성이 아닌 평등적 다원성에 기초한 새로운 공동체적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도시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형평성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으로 정부는 계층이나 집단별로 불균등하게 자원이 배분되거나 공간적 불평등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배의 메커니즘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자원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사회·경제·정치적 요인에 의해 이를 이용하거나 통제하는 시설들은 불균등하게 분포될 수도 있다. 우리는 도시공간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유로운 개인으로堂堂히 존재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통합의 추구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주의에 의한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소득격차에 의한 경제적 분열, 남북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분열을 겪고 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한 경쟁 시대에 들어선 지금, 우리가 이에 대비하여 우리의 경쟁력을 갖추는 대의적인 노력이 전개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민족적 분열은 비로소 하나된 모습의 통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통합된 사회의 도시에서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사회통합 차원에서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경제와 정치논리에 의해 지배되어 왔던 이념적 발상을 인간본위의 사회와 공동체적 삶의 장소 조성이라는 차원으로 높여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의 활성화이다. 지방화시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주민참여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도시를 움직이는 규범으로서 참여에 관한 철학은 지역상황을 반영한 대안의 모색과 최종적인 타협안으로서 접근하는 사회작동 원리의 주요 부분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즉, 주민참여가 단순한 의견청취라는 요식적 행위에서 주민의 동의와 합의를 구하는 절차로 전

화되어야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구축된 참여주체간의 신뢰가 기본이 되어 최적 대안을 모색하는 현실적 접근이 가능할 때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수준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단계별 주민 참여 운용계획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다음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론: 사회적 규범은 누가 만들고 지켜가야 하는가?

1. 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응 원리

제3의 천년대가 열리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오늘날의 사회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는 세방화(Glocalization)로 대표되는 정치·경제·사회의 변화와 탈물질적인 문화·가치를 추구하는 패러다임의 도래, 환경의 악화에 따른 새로운 생태윤리관의 등장,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른 지구촌 사회의 등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는 정보와 지식이 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새로운 기제가 될 것이고, 생태적 원리가 사회경영과 인간생활의 주요 준거로 들어올 것이며,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통제방식 대신에 초국경적·지방적 수준에서 형성되는 합의에 의해 일상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거의 대응원리는 변화하는 여건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결국 파괴와 훼손, 단절과 무시, 경직과 확립이라는 의미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으며, 급기야는 인간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인간생존이라는 기본권적 이해에서 출발하여 자연과의 공생이라는 생태적 관심으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지난 30년간의 고도성장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성장위주의 개발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인간생존의 궁극적인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환경을 가꾸어 나가야 하며,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부터의 도시 개발은 양적인 규범에서 질적인 규범으로 가치를 전환하고,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대중적 요법의 치유에서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를 미리 알고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예방형의 접근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이며, 생산기반 중시의 규범에서 생활환경 중시의 규범으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이 높은 도시환경 조성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체의 합의와 실천이 전제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이나 문명의 진보는 질 높은 환경과 사회조성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녀왔던 잘못된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존이 보장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를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장소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등 우리의 도시가 지속가능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과 삶의 터전, 도시와 도시민 그리고 인간과 사회의 관계는 지속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질 높은 환경조성을 위해 우리사회가 갖추어야 할 요소는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인간 삶을 의미있게 하는 사회적 관계망, 인간의 삶의 원천이 되는 생태적 기반, 사회적·경제적 능력을 감안한 부담능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질 높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사회적 규범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즉, 생태적으로 안전하게, 경제적으로 부담없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2. 사회적 규범의 실천은 누구의 몫인가?

그렇다면 앞서 제시한 질 높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과제와 사회적 규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가 중심이 되어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정치권이 새모습을 찾아야 한다. 정치권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부분이며, 바로 모든 법률과 제도를 만들고 바꾸는 주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적 규범을 만들고 지켜가는데 앞장서야만 한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정략적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정책은 사회발전을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들도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움직여짐으로써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저해·왜곡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와 더불어 많은 부분들에서 개선의 징조가 발견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치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서 있다. 정치권은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로 도시개발에 관여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관료·행정체계의 변화이다. 관료·행정체계는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실질적 주체이며, 사회관리의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사회의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시절 수많은 불합리한 규제, 부당한 명령, 불필요한 간섭으로 대표되는 관료주의 폐해는 사회전반적인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어왔다. 행정조직은 민간활동을 지원·조장하는 지원보육센터로,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서비스센터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탱크로 그 역할을 달리 해야 한다.

셋째, 제도의 정비이다.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조장·지원·조절하기 위한 것이 제도이다. 지금까지의 제도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하여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개혁차원에서 각종의 불요불급한 규제는 자발적 의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가 요구된다. 즉, 복잡한 것은 단순하게, 획일적인 것은 다양하게, 경직되어 있는 것은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넷째, 전문가의 역할이다. 사회적 규범을 만들고 선전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영향력 높은 집단이 바로 전문가들이다. 지금까지는 올바른 사회적 규범을 바로 세우고 지켜간다는 소

신보다는 소위 ‘힘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합리화시켜주는 지식의 오용과 전문적 지식의 발전에만 집착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지식들로 우리사회는 건강한 모습을 잃어왔다. 앞으로 전문가들은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고, 새로운 지식을 함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유지·발전시켜가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이다. 지금까지 일반 사람들은 주체라기 보다는 대상으로 취급되어온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 수동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시민의식은 기대될 수 없었다.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유도과 지원이 요구되고, 전문가 집단의 능동적인 주장과 민간부문이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주장하며, 이를 올바르게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시민의식이 싹틀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자 역할의 충실한 이행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에 앞서 남의 잘못을 꼬집는데 익숙해 있다. 각자의 역할이 충실이 이행될 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삶들이 모여 바람직한 사회가 만들어지게 된다. 즉, 상호협조와 격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우리사회는 제대로된 사회적 규범이 세워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질 높은 도시 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는다.¹⁷⁾

참고문헌

- 경실련도시계획센터(1997), 「시민의 도시」, 서울: 한울.
- 경실련도시계획센터(1999),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보성각.
- 서울특별시(1998), 「98서울시정」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대학교양윤재교수연구실(1999.9), 「소단위 적응형 재개발 수법 연구」
- 양윤재(1989), “도시의 민주화, 건축의 자유화”, 「사회비평」, 1989. 여름호, 서울: 나남.
- 양윤재(1994), 「복합화구상과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17) <http://www.ngo99korea.org/kocngo/k-html/in-b3.htm> 지난 1999.10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1999서울NGO세계대회」에서 마지막 날에 “진보와 희망의 약속:NGO”라는 서울NGO밀레니엄 선언을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비전 구현’과 ‘새밀레니엄의 도전’을 언급하고, ‘우리의 비전’, 그리고 정부와 UN, NGO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중 우리의 비전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문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즉, “1. 우리의 비전은 인간중심적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완전한 참가자로서의 인류, 그들 자신이 운명의 주인인 세계이다. 2. 모든 사회의 추진력이 정의, 평등, 존엄 그리고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권리를 존중하는 세계이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나아갈 바를 분명히 시사하고 있다.

- 양운재(1998. 11), “도시환경과 삶의 질”, 「삶의 질과 환경디자인」,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이창우(1997), “우리나라 도시의 환경보전적 실태와 과제”, 「우리나라의 도시는 과연 지속가능한가?」, 제4회 도시환경정책세미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환경계획연구소
- 임길진(1997), 「미래를 향한 인간적 계획론」, 서울: 나남출판.
- 최막중(1998. 12), “기능수복형 도시재개발: 신림동 순대음식점 사례연구”, 「국토연구」, 서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한국경제연구원(1999. 9), 「IMF경제위기 1년반 평가와 과제」.
- Hanam International Environment EXPO-99 Organizing Committee·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Korea Environment Institute(1999.10), 「International Symposium on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 M. J. Breheny(1992), 「Sustainable Development and Urban Form」, European research in regional science 2, Pion Limited.
- William J. Michell 저, 이희재역(1999), 「비트의 도시(City of bits)」, 서울: 김영사.
- Yoon-Jae, Yang(1999), “The Characteristic of Ordinary Townscape and It’s Cultural Meaning”, TOWNSCAPE AND CULTURAL HERIT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Univesite de Paris-Sorbonne.
- <http://www.cnu.org/> (“THE CONGRESS FOR THE NEW URBANISM”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doci.or.kr/> (걸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홈페이지)
- <http://www.ngo99korea.org/kocngo/k-html/in-b3.htm> (1999년 서울NGO 세계대회 홈페이지 중)
- http://www.sdi.re.kr/publish/912_for8.html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8. 10), 서울시민의 날 기념 도시문화포럼 회의록)
- <http://www.smartgrowth.org/> (“Smart Growth Network” 인터넷홈페이지)